

리퍼트 대사에 영양식 선물한 사람은 고종황녀 양아들 권송성 부총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서 입원 치료를 받던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개고기'를 선물하려 한 주인공은 권송성(75) 국보디자인 회장



△ 권송성 회장은 어머니인 고종 황녀 이문옹 여사를 모시고 1980년 당시 박근혜 한미음병원 이사장을 찾아가 직접 만찬 인연이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한미음병원 이사장), 고종 황녀 이문옹, 권송성

권 회장은 고종황제의 마지막 딸 이문옹(1900~1987) 여사의 양아들이다. 그는 피습 이튿날인 지난 6일 오전 6시 20분께 리퍼트 대사에 개고기와 미역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권 회장은 "한국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준비한 삶은 개고기와 말린 미역 한 박스를 병원 안내데스크에 건넸지만 경호팀의 제지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권 회장은 10일 해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나도 몸이 안 좋아서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에서 개를 가져다 먹는데 마침 고향에서 좋은 개를 받아 둔 것이 있었다"며 "개고기를 먹으면 (수술 후) 회복에 좋다고 해서 그걸 삶아 바로 병원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또 마침 교회에서 미역을 팔고 있어서 산모에게 좋다는 생각에 그것도 함께 가져갔다. 리퍼트 대사 부인께서 얼마 전 출산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리퍼트 대사가 유명한 애견가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그걸 미리 알았다면 다른 걸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한 이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리퍼트 대사 측에 전보를 보냈다.

그는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에도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는 "정부가 병원비를 대주는 것보다 국민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병원 원무과에 리퍼트 대사의 입원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받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500만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미국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회갑 때 들어온 돈을 9.11 테러 때 김대중 정부를 통해 모두 기부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감사 편지를 받았다. 보스턴 마라톤 사건 때도 적십자를 통해서 성금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우 기자/plato@heraldcorp.com

봉화중친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권규씨 선출

봉화중친회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 봉화웨딩 5층에서 권오성·혁기 고문 등 남여족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영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경길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모두는 시조 태사공님의 후예로서 모든 대사에 솔선 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자고 당부했으며,

권오성 고문의 축사, 권기원 감사의 감사보고 사무국장의 경과·결산 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규씨가 감사에 권기원, 오서씨가 선출 되었으며 권규 신임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규 △부회장: 권기석, 오영, 우봉, 대식, 순남△감사: 권기원, 오서 △총무: 권진원



△ 봉화중친회 정기총회에서 권규 신임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권혁세 기자>

의성중친회 제51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영호씨 선출

의성중친회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 의성중친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순락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열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모두는 권씨 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타에 모범이 되자고 말했으며, 이어 권세목 고문의 격려사와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경로 축하금 전달에 이어서 수석부회장의 내빈 소개, 경과, 감사,

결산보고 다음에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영호씨가, 권세순 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했으며 권오경, 태환고문에게 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행사에서 경품추첨과 노래장람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영호 △수석부회장: 권용규 △부회장: 권세순 △감사: 권혁민, 호문 △사무국장: 권순락 △청년회장: 권영복 △부녀회장: 권미란



△ 의성중친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권영호 새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총무 권인섭

<권혁세 기자>

2015년 안동중친회 부녀회 정기총회 개최



관람의원의 부인 김지희 여사, 노구(老媪)에도 불구하고 안동 중친회관 대지를 선포 기증했던 김순옥 할머니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안동권씨부녀중친회(회장 김정아)는 4월 14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전로 안동권씨중친회관 지하홀에서 안동권씨 딸들과 며느리 등 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안동권씨 부녀중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동중친회 권주연 회장을 비롯하여 권택기 전 국회의원, 김

이날 부녀중친회 권영숙 총무의 사회로 회장 인사, 축사, 경과보고, 결산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아 부녀중친회장이 부재중으로 회장을 대신하여 손복영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부녀회는 서로 단결하여 부녀회를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안동중친회 권주연 회장은 축사에서 "안동에서

잘못하면 지적받기 쉬우니 처신을 잘하고 나아가 타성(他姓)한테 부끄럼이 없도록 살아가자"고 했다. 권기택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기의 경력을 소상하게 소개한 후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마다 정기총회를 치른 가운데 이날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나 지하홀이 비좁은 바람에 일부 회원들은 방안에 웅기종기 모여 회의를 지켜보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점심은 비빔밥과 돼지고기 볶음을, 간식은 떡, 식혜, 바나나, 음료수 등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곧 이어 2부행사로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래자랑을 했는데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진>

분당(盆唐)중친회 정기총회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 경기 분당 미금역부근 수협어촌 회관에서 권영학 회장(추밀공파, 34세, 정현타워건설대표)을 비롯 임원진, 지역족친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권오연 총무에 의해서 태사공 망배로부터 영학 회장 인사로 "오늘 분당중친회 정기총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의원, 지역족친협의회에서 늦은 시간 참석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 후 분당 중친회는 1998년 창립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중친회로서 저는 중사업무를 계승받아, 오늘 전회의 의결 된 분당중친회가 권문의 발전을 위해 함께 진력 해보

자는 의미에서 결정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차기 회의는 족친참여 확대를 위해 1인1명 초청 모셔오기 운동, 권문(權門) 종보(宗報)구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외도 권선상 前 상남회장 등이 축사 후 오연 총무의 공지로 종보신 청자 파악을 통해 종보보급 지극개설, 월례회시 1인1명 초청 모셔오



기'에 강조를 끝으로 산화하였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영학(추밀공파,35세,건설업대표) 자문위원: 권영학(부정공파,34세,정현타워건설대표), 권오성(추밀공파,35세,화학약품대표) 감사: 권상택(좌윤공파,36세), 권오종(북아공파,35세), 총무: 권오연(추밀공파,35세,자동차매매상사대표) <권범준 기자>

도산면 중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오룡씨 선출

안동 도산면 중친회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1시 도산면 서부리 「나그네식당」에서 권숙도 도산면장 축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병선 총무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오식 회장의 인사

와 권박 안동 중친회 사무국장, 권숙도 도산면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권오룡씨, 총무에 권기창씨로 결정 해서 회의를 마치고 오전에 들어가 화기에예한 가운데 산화했다.



△도산면 중친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권오룡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권혁세 기자>

예안중친회 제39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태순씨 선출



△ 예안중친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예안중친회(회장 권오득)는 지난 3월13일 오전 11시30분 예안면 정산리 「세명식당」에서 권정식, 춘서 고문, 남여족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9

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기의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득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모두는 투철한 송조정신으로 권문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으며, 권박 안동 중친회 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권기택 감사의 감사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 : 권태순 △ 부회장: 권영우, 기창 △감사: 권기수, 기택 △총무: 권정규 <권혁세 기자>

남선면 중친회 정기총회

안동 남선면 중친회(회장 권중덕)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남선면 「산복골 식당」에서 남여족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영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으로 권영세 안동시장 부인, 권주연 안동중친회장, 권박 사무국장, 권택기 前 의원등을 소개했다. 권중덕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모

두는 대동단결해 권문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으며 권주연 안동중친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권국성 감사의 감사보고, 사무국장의 경과, 결산보고 후 기타타의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으로 족친간에 조의를 투탁게 했다. <권혁세 기자>

부산광역시 중친회 제 39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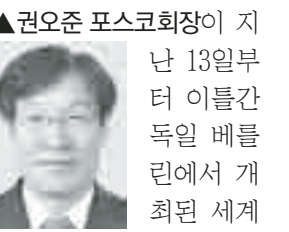
2015년 안동권씨 부산광역시중친회 제 39차정기총회를 아래같이 개최하오니 이웃 족친과 함께 성대한 총회가 되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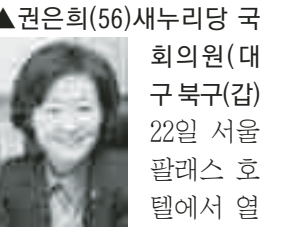
- ▶ 총회 일시 : 2015년 5월 31일(일요일) 오전11시(오전 10시 30분까지 입장 바랍니다).
- ▶ 총회 장소 : 부산직접사 회관 1층 대강당(지하철 부전역 2번출구 : 안동권씨 부산중친회관 건너편)
- ▶ 기 타 : 염서 지참, 우천불구, 참가비 없음, 중식, 노래자랑, 경품추첨
- ▶ 부산중친회 : ☎051)804-8703

2015. 5. 1

부산광역시 중친회 會長 권吉相



▲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에 참석, 주요 청강사 CEO들과 철강산업 발전방안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 권은희(56)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토론회 및 시상식에서 한국통신학회가 주는 정보통신대상을 받았다.

▲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순주)은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단국대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북한이탈 주민창업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12일 권혁세 전(前)금융감독원장이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선임됐다.

▲ 前 안산시청·총주지청 지청을 지냈으며 본인 부총재인 권태오(權泰鎬 33세, 추밀공파)

가 지난 4월 24일 청주에서 「법무법인 청주」의 대표 변호사로 개업했다.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 권호영 부회장이 지난 3월 4일 경우회가 산하법인으로 설립한 삼성에스엘(주) 회장에 취임했다.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서예진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초정 권창륜 서예가 진흥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지역단신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안동지역에서 3명이 당선되었다. △권순협(안동농협 조합장)△권영구(북안동 농협 조합장)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임동면중친회(회장 권영록)제52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 권영희시장이 청암 권병덕 선생 동상을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국지사 묘역에 있다.

배위 초배는 원주 원씨 재배는 전주이씨아들은 독자로서 광복회 부회장 영창이 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했다. 출신지 청주 삼일 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다.

권문동상 탐방기(3)

권병덕(權秉德) (3) 청암공(淸菴公) 동상(銅像) 건국공로훈장 복장(建國功勞勳章 復章) (受賞)

초희는 병준이고 자는 윤좌이며 호는 정암·정암 또는 우운이다. 종파로서 부정공의 11대 사종손 참봉 휘 엽의 차자 인재공 대기의 11대 손이 송소공 우의 10대손이다.

그 4자 금곡공 익린의 9대손 증이조참판 이이의 7대손, 휘 축의 6대손, 휘 상원의 5대손, 문영의 맏아들이다.

1868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했다. 13세 때 1885년에 동학에 입교하여 교도가 되고 1894년의 의암 손병희와 함께 6만 농민군을 이끌고 호응했으나 실패 한 후 각처를 방랑했다.

1908년 일본에서 귀국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일으키자 41세로 이에 참여하여 전제관장, 이론관장 대

리, 금융관장, 보문관장등을 역임하였다.

1912년 천도교에서 시천교가 분리될 때에 이에 가담하여 시천교 종무장을 거쳐 시천교에서 경영하는 중앙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8년 천도교로 개종해서는 도사가 되었다. 1919년 기미에 3·1운동에서는 손병희와 더불어 민족대표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이 사건으로 일제에 검거 투옥되어 2년간 복역하였다. 출옥한 후에는 천도교 총리원의 서무와 주임을 거쳐 총양교회 삼계원장, 감사원장, 서도사등을 지냈다.

공은 또한 민족사 탐구에 심혈을 기울여 여러 저술활동에 힘썼는데 <조선통독사>, <이조전란사>등을 집필하였다.

1944년 7월 31일에 별세하는 수가 77세였다. 공의 전기로는 실기가 있다. 묘소는 서울 국립 현충원